베버적 입장에서 자연을 배려하는 사회학 재구성해

《합리성과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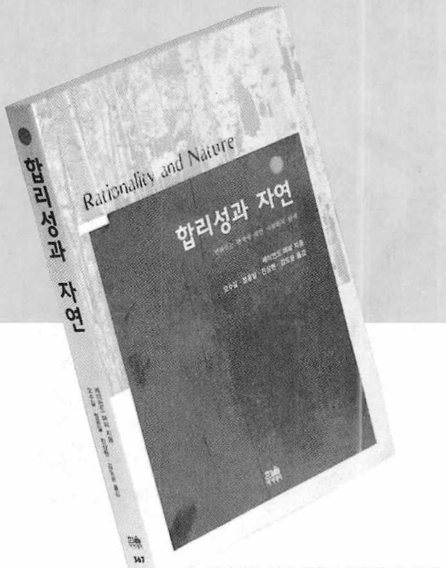
구승회 |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요즈음 학문활동의 중요한 경향은 그 출생 배경이 무엇이든 '생태학적 · 환경론적' 문제제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 역시 "자연도 사회학과 관련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학은 사회 속 인간들의 상호작용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자연은 오직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전통적인 사회학을 '전(前)생태학적 사회학'이라 이름붙이고 이를 비판하며, "사회적 행위와 자연과정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사회이론을 시도하겠다고 밝힌다.

자연의 문화적 합리화 과정 고찰

저자의 이런 생각은 지구 환경의 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생태운동이 사회학적 반성을 촉구하게 했으며, 그 결과 사회학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자연과 사회의 상호구성과정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행위와 자연과정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또는 "사회관계가 자연환경에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또 자연환경에 영향받으며 구성된다"는 전혀 놀랍지 않은 '발견'을 제시한다.

자연을 배려하는 사회학으로 사회학을 재구성할 때 저자가 사용하는 무기는 베버다. 그래서 그는 베버의 '합리성' 개념으로 "사회와 문화와 자연과의 상호작용"의 탐구를 이 책의 목표로 설정한다. 그동안 많은 '환경사회학' 저술이 나왔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막스 베버를 통해 자연의 사회적 합리화 과정을 고찰하는 시도는 한번도 없었다. 저자는 "막스 베버의 연구는 사회행위와 자연과정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가치있는 이론을 제공한다"고 보고, 베버를 통해서



레이먼드 머피 지음 | 오수길 외 옮김
한울아카데미/A5신/352면/15,000원

"사회행위의 생태학"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사회행위 생태론'은 무엇인가? 저자는 "인간의 사회행위, 비인간종들의 자연과정, 자연의 비생명적 과정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핵심은 자연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인데, 이런 화두는 굳이 베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머레이 북친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부부터 저자는 북친을 거듭 인용하는데, 1장에서 4장까지의 논의는 북친이 여러 저술에서 비판해 온 그간의 생태사상들을 재정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판되는 다양한 현대 생태사상은 저자의 것이라기보다는 북친의 것이다. 그런데 북친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뤽 페리의 어조로 바뀐다. 그럼에도 그의 비판이 베버적이라는 흔적은 없다.

잡다한 현대 생태사상의 집적에 불과해

심층생태론도 안되고, 사회생태론도 부적절하고, 에코페미니즘도 마땅치 않다는 그의 비판은 일면 정당함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대안으로 제시된 저자의 입장은 기왕에 잘 정리된 생태사상보다 더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저자는 자연과의 공생관계를 거듭 주장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생하는 것인지 말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이 책은 잡다한 현대 생태사상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논점들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저자의 이런 비판들은 부지런한 독자라면 페리의 글, 북친의 글, 제넛 빌의 글을 통해 이미 다 읽은 것일 것이다.

저자는 베버, 하버마스, 울리히 벡, 폴라니 등 자신의 현학을 마음껏 뽐내는데, 10장 마지막의 "재귀적 합리화와 반성적 합리화"란 소절에 이르러서는 이런 현학적 취향이 도를 넘어 독자를 어지럽게 한다. 자연과정과 인간행위의 상호작용, 혹은 저자가 즐겨 쓰는 말로 '공생관계'를 회복하고 사회학을 그렇게 재구성할 때 울리히 벡이 도무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벡이 자연과정과 사회구성의 상호작용에 깊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을 위해 끌어들인 것이다. 당연하게도 벡의 프로젝트는 저자가 생각하는 "친생태학적 사회학"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과 사회의 공생관계, 변증법적 관계, 상호작용 등의 용어는 생태학적 담화에 즐겨 거론되는 상투어다. 저자가 생각하듯, "사회행위의 생태학"이 이처럼 고도로 추상화된 '관계'로 규정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회학이 아닐지도 모른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저자의 기획이 진정한 의미의 '생태학적 사회학'이 되려면 저런 거대한 사회 재구성의 프로젝트보다는 환경문제의 현실, 생태계의 현상을 분석하는 일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